* 목적
  + 명확한 문제 설정과 솔루션 제시.
  + ‘삶의 질’이 무엇인지 명확한 이해. 본 프로젝트가 ‘삶의 질’을 micro-level에서 이해할 수 있다면,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.
  + 본 프로젝트의 솔루션이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 제시.
  + 본 프로젝트의 솔루션이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. (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)
* 스터디 방법
  + 토론과 회의. (문제 설정과 솔루션 관련해 필수적임.)
    - 이대로 괜찮은가. (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가. 이건 우리끼리의 고민. 그 결론에 따라 스터디 방향성이 갈림. 중간발표 직후 논의에서 이대로 괜찮다. 는 결론이 나오긴 했으나,
* 정말 이대로 괜찮은지.
* 아니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데이터를 보여준다거나 무언가 시스템이 더 필요할지.
* 아니면, 도메인 스터디를 일단 한 달간 진행해보고, 그 때까지 납득할 만한 문제 설정과 솔루션(기존 서비스와는 구분되는)이 나오는지 보고, 나오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더 추가할지.

피드백 내용: 해당 도구의 기능이 ‘나의 일상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~~ (피드백 마지막 페이지) 그렇기에, 문제에 더 적합한 해결책은 ‘교육용 과제’를 만드는일~. → 어떻게 생각하는가.

* + - 중간 발표 및 피드백 에서 제시해주신 질문들

→ 위 질문의 답변에 따라 논의 여부가 달라짐.

* + - * ‘왜 나는 나의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싶을까?’ → 개인은 스스로를 정량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으나, 그 근거 자료를 찾아야 할 듯.
      * ‘언제 나는 나의 컨디션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?’
      * ‘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지금 나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까?’
      * 이 앱을 광고한다면?
      * (언제,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인가?)
    - 우리 솔루션이 ‘어떻게’ micro-level에서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. 또는, 보여주기 위한 도구를 마련했다. 정도로 생각할 것인지? (최문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B2B 거래를 통해 회사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.)
    - 백호’s 개인적 의견: 최문정 교수님이 발표 당시 QoL은 비교나 정책 마련을 위한 도구다. 라고 하신 이유는, 우리가 발표할 때에 ‘우리는 기존의 QoL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, 아예 다른 차원의, 보다 실질적이고 잘 와닿는 의미의 QoL 측정도구를 만든거다.’ 라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는 아닐까? 기존 QoL을 개선하겠다! 로 이해하셨을 거 같단 생각이 조금 들었음. →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솔루션이 틀린 게 아님. 실제로 최문정 교수님께서 제시해주신 방향성이 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.
  + 중간 발표 피드백에서 제시해주신 Reference
    - 피드백 내용: 컨디션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 수준에서 ‘XX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경향을 보인다’ 라고 말하기 때문에 개인의 수준에서, ‘나’를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‘나만의’ 패턴을 찾는 것인데 말이죠

<https://quantifiedself.com/>

→ 들어가보니 이러한 방향성에서, ‘개인’에게 집중한 연구를 하는 포럼? 같은 사이트

* + - 자신에 대한 quantitative 데이터를 수집하고, 이들 간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보는 일에 관련한 서비스

<https://exist.io/>

<https://zenobase.com/#/>

.

* + 다음 키워드로 각자 공부 후 발표(학습 내용 공유)
    - 삶의 질, 행복 지수 등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표들
      * 논문 일부 발췌?
      * 책이나 여러 자료를 확인.
    - 개인에게 BPS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장점
      * 좋은 페르소나가 필요. 장점이라기보다도, 명확한 문제 설정이 된다면 저절로 해결될 부분인 거 같기도 함.
      * 설문조사?
    - 개인의 BPS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연구적 가치
      * 참고했던 책 일부 발췌? (Top-Down vs Bottom-Up)
    - 개인의 BPS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의료적 가치
      * 참고했던 책 일부 발췌?
    - 기존의 다른 서비스 (앱 뿐만 아니라 다른 기록 도구들 포함.)
      * gyroscope
      * 중간발표에서 언급된 위 서비스들 (중요)

→ 스터디 과정에서 각자 파트 공부 중 필요시, 최문정 교수님께 미팅 요청드리는 것도 좋을 듯.

* + 책 또는 논문 자료 학습 (맡은 파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탐색)
* 총 정리
  + 7-1에 이대로 괜찮은가. 논의,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도메인 스터디 및 회의 일정 수립
  + 스터디 방식은 크게 다음 세 가지.
    - 회의와 토론
    - 각자 맡은 파트 스터디 및 공유
      * 그 과정에서 이건 꼭 다 같이 봐야 한다. 싶은 건 공통 스터디.

코멘트:

개인적으로 스터디에 들어갔으면 하는 건, 스터디 후에 공부한 자료를 잘 정리해놓는 건데, 팀원들이 어떻게 자료를 잘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 +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! 우리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, 우리 프로젝트에서 정말 필요한 지식과 근거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갔으면 좋겠어. 물론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, 최종 발표 때 탄탄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내 바람이야.

최종적으로 스터디 한 것들을 모은 자료집을 만들게 될 수도 있는데,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. (가현욱 교수님께서 학회 논문을 내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하셨는데, 이에 대해서는 같이 따로 얘기해보자.)

너가 총 정리에 쓴대로 논의 결과에 따라 스터디 일정 수립하면 될 듯! 수고 많았다!!

* 1차 키워드 선정
  + 삶의 질 지수 만들기로 결정
    - 타 서비스 조사 (gyroscope/다른 둘) + 제시해주신 사이트 확인
    - 삶의 질 지수 조사 (WHOQOL, EQ-5D, SFv36, SEQOL?(뭐더라) etc)
    - 우리 솔루션이 어떤 연구적, 의료적 가치를 지니는가.
    - 삶의 질 지수, 행복 지수 등 여러 지수들의 평가 및 제작 방법론 조사 (논문탐색?)
  + 조언자가 되기로 결정
    - 타 서비스 조사 (gyroscope/다른 둘) + 제시해주신 사이트 확인
    - 우리 솔루션이 어떤 연구적, 의료적 가치를 지니는가.
    - 우리 서비스에서 수집할 각 데이터의 ‘정상’ 범위 및 줄 수 있는 조언 탐색.
    - 삶의 질 지수 조사.(이 경우, 실제로 삶의 질 지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므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짐. 추후 우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삶의 질 지수를 측정 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기 위함)

(case study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→ 2차 키워드 탐색에서 진행)

각 키워드에 따라 조사량이 많을 경우 2차 키워드 탐색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.